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2, pp.9-18, March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9

JCCT 2023-3-2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신수정*, 이승민**

Sujeong Shin*, Seungmin Le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들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132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살사고,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연구를 시도하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간호, 스트레스, 자살사고, 사회적 지지

Abstract The study was a study that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in the 3rd and 4th graders of nursing department at a university in G city,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ing to participate, and the final subjects were 132.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0 to November 25, 2021. The analysi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support of nursing student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and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that attempts repetitive research and strengthens social support.

Key words : Nursing, Social support Stress, Students, Suicidal ideation

*정회원,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7일

Received: December 30, 2022 / Revised: February 24, 2023
Accepted: March 7, 2023
**Corresponding Author: pr20051@koje.ac.kr
Dept. of Nursing, Geoje Univ, Korea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및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심 보건의료자원인 간호 인력에 대한 수급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호사 공급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간호사 인력의 공급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꾸준히 증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2030년에는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 9천명의 44.1%가 부족하여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고,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2] 인력수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생산인구의 감소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전 연령대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유독 대학생이 포함된 20대만 자살률이 증가하였고, 그중 해당 연령대의 전체 사망률까지 바꿔놓은 20대 여성의 높은 자살률[3]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비 간호사로서 대학 졸업 후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간호대학생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임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은 학업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많은 양의 전문지식, 임상기술, 임상 적응능력, 엄격한 행동 규범, 과중한 교과과정의 부담감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4] 의료계열 대학생의 경우 43%가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5]는 대학생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무엇보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살사고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선행하는 일련의 사고과정으로 자살사고가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고, 자살행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살시도를 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6배나 높다[6]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살사고는 자살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다. 더군다나 2019년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고강도 거리 두기가 실시됨으로써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의 트라우마, 공포, 불안,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였고, 감염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지속 되면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7]. 특히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임상 실습이 중단되는 등 간호교육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8] 학업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대학 생활적응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었다.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할수록 자살사고도 증가 되며[9] 스트레스는 대학생에게 심리적 부담과 혼란을 주게 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이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10].

자살사고의 환경적 원인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황적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11]. 대학생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대학 차원의 스트레스는 학업 문제, 이성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교수 문제, 경제문제 및 장래 문제 등 다양하지만[12] 그 결과는 대인관계, 취업 및 학업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13].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 차원의 스트레스 외에도 임상 실습에 따른 다양한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임상 차원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11] 간호대학생 중 이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자살과 관련된 행위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으므로[12]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대학생 시기는 과도기적 시기로, 특히 현재의 적응이 이후의 적응체계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인 적응에 필요한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14].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물질적 지지, 스트레스 사건을 정의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평가적 지지, 타인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긍정적인 기분을 고취시켜주는 소속감 지지,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인정받는 자존감 지지로 설명할 수 있다[15].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의욕과 활기를 불어 넣어 대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판단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6]. 또한, 자살에 대응하는 개인의 외적 자원이며, 자살사고나 행동을 감소시키는 대표적 보호 요인으로 평가되는데[17] 자신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사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잘 견딜 수 있지만, 사회적 지지가 빈약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되어 겪는 고통의 정도가 더 상승하게 된다[18]. 즉,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완충재 역할을 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좌절에 극복하거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9][20][21]. 사회적 지지에 따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나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의 경우 증상의 시작과 발현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2][20[21], 자살사고 역시 사회적 지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사건마다 요구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고[15]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에 완충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지지 정도를 유형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전공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알아보는 동시에 이들의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자살사고 정도를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 연구[22]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 연구[20][23]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의료 전문인력으로서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에 기여할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해당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와 자살률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살사고와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살사고,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 시에 소재한 G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중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살사고 관련 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한 선행연구[24] 결과를 근거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예측요인 9개로 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26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8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6명을 제외한 13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유지수, 장수정, 최은경, 박지원[11]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9문항으로 대학 차원 스트레스 39문항, 임상 차원 스트레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지수, 장수정, 최은경, 박지원[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Cohen & Hoberman[15]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 ISEL)를 문성원, 한종철[25]이 번역하고 김미숙[26]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물질적 지지 10문항, 평가적 지지 12문항, 소속감 지지 11문항, 자존감 지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ohen & Hoberman[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7이었고, 김미숙[26]의 연구에서는 .70, 본 연구에서 .94였다.

3) 자살사고

자살사고는 Reynolds[27]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최순옥과 김순남[28]이 대학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Reynolds[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7이었고, 최순옥과 김순남[28]의 연구에서는 .93,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사항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G 시의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이해관계가 없고 자료수집에 대해 훈련받은 연구보조자가 서면 동의서를 배부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에게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한 후 오직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종료 후에는 모두 소각 처리하여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응답 시간은 20~25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스트레스, 자살사고와 사회적 지지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29]의 3단계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23.43세로, 나이는 20-24세가 108명(81.8%)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18명(13.6%), 30세 이상이 6명(4.6%) 순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77명(58.3%) , 4학년이 55명(41.7%)이었다. 경제 상태는 중위가 72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형태는 대부분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5명, 64.4%).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가장 많았고(98명, 74.2%). 전공만족도는 만족 93명(70.5%), 보통 33명(25.0%), 불만족 6명(4.5%) 순이었다. 학교 성적은 3.5 이상이 88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32)

Variable	Characteristic	n(%)
Age(yr)	20-24	108(81.8%)
	25-29	18(13.6%)
	≥30	6(4.6%)
	M±SD	23.43±2.67
School grade	3	77(58.3%)
	4	55(41.7%)
Home economy level	low	5(3.8%)
	middle	72(54.5%)
	high	55(41.7%)
Housing type	home	85(64.4%)
	domitory	42(31.8%)
	a room with cooking facilities	5(3.8%)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3(2.3%)
	usual	31(23.5%)
	health	98(74.2%)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6(4.5%)
	usual	33(25.0%)
	satisfaction	93(70.5%)
School record	3.5>	44(33.3%)
	≥3.5	88(66.7%)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43±0.62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대학 차원 스트레스가 2.55±

0.66점으로 임상 차원 스트레스의 2.20±0.69점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87±0.47점으로 하위영역별 점수는 물질적 지지 4.38±.50점, 평가적 지지 4.16±0.58점, 소속감 지지 3.76±0.60점, 자존감 지지 3.24±0.51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살사고는 5점 만점에 평균 1.59±0.71점이었다.

표 2.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 정도
Table 2. Score Distribution of Stress,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N=132)

Variables	Mean±SD	Min-Max
Stress	2.43±0.62	1.17-3.71
college-based stress	2.55±0.66	1.10-4.08
clinical-based stress	2.20±0.69	1.00-3.80
Social support	3.87±0.47	2.67-4.73
tangible support	4.38±0.50	3.00-5.00
appraisal support	4.16±0.58	2.58-5.00
belonging support	3.76±0.60	1.82-4.91
self-esteem support	3.24±0.51	1.58-4.50
Suicidal ideation	1.59±0.71	1.00-4.2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자살사고는 경제 수준(F=3.150, p=.046), 건강상태(F=3.271, p=.041), 전공만족도(F=3.564, p=.03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 수준이 하위일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일수록 자살사고 정도가 높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of Suicidal idea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Variable	Characteristic	Mean±SD	t or F(p)
Age(yr)	20-24	1.64±0.75	1.33 (.268)
	25-29	1.35±0.38	
	≥30	1.54±0.77	
School grade	3	1.64±0.78	.83 (.407)
	4	1.53±0.61	
Home Economy level	low	2.01±0.74	3.15 (.046)
	middle	1.69±0.75	
	high	1.43±0.62	
Housing type	home	1.52±0.63	2.29 (.105)
	domitory	1.68±0.82	
	a room with cooking facilities	2.14±0.86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2.26±1.66	3.27 (.041)
	usual	1.79±.067	
	health	1.51±.67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12±1.15	3.56 (.031)
	usual	1.77±0.79	
	satisfaction	1.50±0.63	
School record	3.5>	1.72±0.85	1.34 (.185)
	≥3.5	1.53±0.63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 간의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살사고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58, p<.001),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7, p<.001).

표4.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살사고 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N=132)

Variables	Stress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Stress	1		
Social support	-.53 (<.001)	1	
Suicidal ideation	.58 (<.001)	-.47 (<.001)	1

5.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저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60으로 나타나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 한계(tolerance)는 0.71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39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43,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22,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자살사고를 예측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1, p=.007). 또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의 β값 .58보다 작은 .46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Z=2.57, p<.01), 모형의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F=37.75, p<.001).

표 5.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Table 5. Madiating effect Social support in stress and suicidal idea

Predictors	B	SE	β	p
1. stress → social support	-.43	.06	-.53	.001
2. stress → suicidal idea	.22	.03	.58	.001
3. stress, social support → suicidal idea				
stress → suicidal idea	.18	.03	.46	.001
social support → suicidal idea	-.11	.04	-.22	.007
Sobel test: Z=2.57, p<.01				

Adjusted R^2=.36, F=37.75, p<.001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 2.43점이었다. 이는 장순양[30]의 연구에서 평균점수 2.56점, 정하윤, 이경수[31]의 연구에서 평균점수 2.60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대학 차원 스트레스는 평균점수 2.55점, 임상 차원 스트레스는 평균점수 2.20점으로, 대학 차원 스트레스가 임상 차원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순양[30]의 연구에서도 대학 차원 스트레스가 평균점수 2.69점으로 임상 차원 스트레스 평균점수 2.32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같다. 이는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는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등 학업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 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부족, 과제물의 증가, 원격 수업을 위한 환경 인프라와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의 부족 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 3.87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한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32]의 연구에서 평균점수 3.78점, 김소라[33]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점수 3.82점과 유사하였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평균점수 3.87점(5점 만점)으로 77.4%인 것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4]에서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가 2.26점(3점 만점)으로 도구의 75.4%를 차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전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수준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나 문항을 사용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서술통계를 보고하지 않는 연구들이 있어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자존감 지지가 평균점수 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 4.16점, 소속감 지지 3.76점, 물질적 지지 3.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지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받는 지지는 다소 낮은 것[32]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 1.59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정하윤, 이경수[31]의 연구에서 평균점수 1.46점과 유사하였다. 최연숙, 이은주[12]의 연구결과에서 직접 자살시도 경험을 한 간호대학생이 7.4%, 가까운 지인의 자살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11%였는데, 이들의 자살사고는 자살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사고가 바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학생들이 생활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효과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고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 및 대학차원에서 생활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를 살펴보면 건강상태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정하윤, 이경수[31]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는 건강상태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 같으며, 황은희, 김건희, 신수진[35]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낮은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16]. 가정경제상태의 경우 Konick LC[36]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경제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용미, 박소영, 김미정[20]의 연구에서도 자살사고가 가정생활 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7]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대출, 생활비의 경제적 과부담, 가계부채 등이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실제로 대학생의 스트레스 중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20]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살 사고에는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어떠한 변수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연구결과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구로 확대하거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자살사고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다는 최연숙, 이은주[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와 자살계획을 증가시키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살사고와 높은 관련성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학생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제공, 교수 학생 간의 상담 활성과 등 실질적인 우울 및 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자살사고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다는 서명자, 오진주[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나 정신 병리학적 어려움에 대응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살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17]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이용미, 박소영, 김미정[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Glanz KE, Lewis FME, Rimer BK[3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주요한 사회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정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명자, 오진주[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한미영, 김명진, 김영숙[3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살사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보다 의미 있는 타인인 가족,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지지, 자존감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살사고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전략은 이들의 스트레스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학생은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16]. 이처럼 향후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자원의 확보를 높여 삶의 만족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들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사회적 지지의 하부개념들이 각각 우울 감소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자살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자살사고를 하는 사람은 실패자 또는 낙오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20대의 자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며, 나아가 이들의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 국가의 주축이자 미래의 필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층의 자살사고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그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 역할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이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연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어 추후 에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확률적 표집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지역의 보완, 연구 대상수의 확대, 면담 등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다각적인 통로의 자료수집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외생변수를 찾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및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및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전체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을 이용한 일회적 시점에 국한된 양적 연구결과이므로 추후 심층 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확대 및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J.H. Kim, H.J. Kwon, E.T. Park, H.Y. Choi, S.M. Lee, “Nursing Workforce Supply & Demand: Review and Prospect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Vol. 27, No. 4, pp. 27-49, November 2021.

[2] OECD, Suicide rates, 2020, https://data.oecd.org/ healthstat/ suicide-rates.htm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22 White Paper on Suicide Prevention”, pp. 1-247, June 2022.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1768

[4] S.A. Park, S.M. Lee,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Distance Learn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5, pp. 111-119, September 2022. DOI:10.17703/JCCT.2022.8.5.111

[5] R. Tyssen, P. Vaglum, N.T. Grønvold, O. Ekeberg, “Suicidal ideation amo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physicians: A nationwide and prospective study of prevalence and predict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64, pp. 69-79, April 2001. DOI:10.1016/S0165-0327(00)00205-6

[6] M.K. Kim,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Family Resilience,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1, pp. 61-83, February 2012.

[7] D.T. Kim, S.K. Kong, S.H. Lee, K.S. Lee, S.H. Jang, S.M. Oh, “Characteristics of Korea's COVID-19 Response System from a Democratic Governance Perspectiv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Vol. 10, pp. 1-168, October 2020.
[8] H. Aslan, H. Pekince, "Nursing Students' 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Percieved Stress Level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 57, No. 2, pp. 695-701, August 2020. DOI:10.1111/ppc.12597
[9] K.M. Yang, S.Y. Bang, S.Y. Kim,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0, No. 1, pp. 41-50, March 2012.
[10]N.Y. Lee, "The Effects of Empathy and Life Stress on Stress Coping Strateg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December 2015.
[11]J.S. Yoo, S.J. Chang, E.K. Choi, J.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8, No. 3, pp. 410-419, June 2009.
[12]Y.S. Choi, E.J. Lee, "Suicidal Ideation in Relation to Lif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9, No. 1, pp. 43-53, June 2015.
[13]E.H. Lee, S.J. Park, "Validity and Application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0, No. 2, pp. 69-93, June 2012.
[14]S.M. Ja, J.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4, pp. 815-824, April 2021. DOI:10.5392/jkca.2021.21.04.815
[15]S. Cohen, H. Hoberman,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No. 2, pp. 99-125, April 1983.
[16]S.H. Park, H.D. Min, H. Go, "On the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and Job-Seeking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8, pp. 719-744, April 2020.
[17]E.M. Kleiman, R.T. Liu,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in Suicide: Findings from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50, No. 2, pp. 540-545, September 2013. DOI:10.1016/j.jad.2013.01.033
[18]S.Y. Kim, K.M. Cha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on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eaning of Lif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4, No. 1, pp. 1-13, June 2013.
[19]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Journal of Biobehavioral Medicine, Vol. 38, No. 5, pp. 300-314, September 1976.
[20]Y.M. Lee, S.Y. Park, M.J. Kim,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6, No. 2, pp. 151-162, June 2017. DOI:10.12934/jkpmhn.2017.26.2.151
[21]E. Stice, J. Ragan, P. Randall,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Differential Direction of Effects for Parent and Peer Suppor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3, No. 1, pp. 155-159, February 2004. DOI:10.1037/0021-843X.113.1.155
[22]S.J. Park, E.Y. Park, S.I. Lee, A.H. Jang, S.W. Cho, "Effects of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on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3, No. 3, pp. 310-319, August 2016. DOI:10.7739/jkafn.2016.23.3.310
[23]Y.K. Yang, K.S. Han, M.H. Bae, S.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3, March 2014.
[24]G.S. Noh, M.S. Kim, Y.G. Kim, M.G. Noh, S.J. Jwa, N.G. Hong, M.H. Choi,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5, No. 1, pp. 67-76, February 2021. DOI:10.38083/JKNS.25.1.202102.067
[25]S.W. Moon, J.C. Han, "The Effects of Cognitive Appraisal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Cop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7, No. 2, pp. 233-246. December 1996.
[26]M.S. Kim,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Anxiety caused by Stresss", Mister'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June 1994.
[27]W.M.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7.
[28]S.O. Choi, S.N. Kim, "Suicidal Ideation and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90-199, August 2011.
[29]R.M. Baron, D.A. Kenny,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July 1986. DOI:10.1037/0022-3514.51.6.1173
[30]S.Y. Jang, "Influence of Stress and Resilience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30, No. 3, pp. 1075-1088, May 2018. DOI:10.13000/JFMSE.2018.06.30.3.1075
[31]H.Y. Jung, K.S. Lee,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Mental-Health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3, No. 2, pp. 328-339, June 2015. DOI:10.15205/kschs.2015.3.2.328
[32]G.W. Lee, I.O. Moon, S.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4, No. 2, pp. 15-27, August 2013.
[33]S.R. Kim,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December 2003.
[34]K.H. Park, "Developmen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stimate University Students' Depress -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8, No. 6, pp. 779-778, December 2008.
[35]E.H. Hwang, K.H. Kim, S.J. Shin, "The Effect of Life Stress,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1, No. 3, pp. 239-248, August 2016.DOI:10.21097/ksw.2016.08.11.3.239
[36]L.C. Konick, P.M. Gutierrez, "Testing a Model of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5, No. 2, pp. 181-192, January 2005. DOI:10.1521/suli.35.2.181.62875
[37]V.K. Mathur, D.G. Freeman, "A theoretical model of adolescent suicide and some evidence from US data", Health Economics, Vol. 11, No. 8, pp. 695-708, April 2002. DOI:10.1002/hec.704
[38]K. Glanz, B.K. Rimer, K. Viswanath,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Sanfrancisco, CA, Jossey -Bass, pp. 189-210, February 2008.
[39]M.Y.Han, M.J. Kim, Y.S. Kim,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Resilience, Happiness Index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 8, pp. 175-188, October 2015.